하이데거의 육필 한 점

그리움 자아내는 하이데거 · 서동익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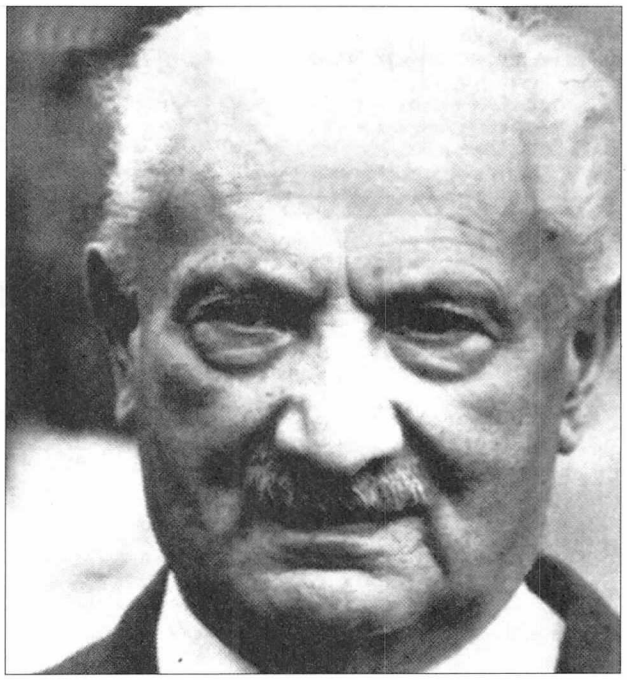
성진기
전남대 교수 · 철학

학부시절 스승이었던 서동익 교수의 기증 장서 속에서 하이데거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는 책을 발견하고는 홍분한 나머지 책을 바꿔치기할까 하는 흑심이 발동하기도 했다. 하이데거의 육필 한 점이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인가 자문하면서도 그 책이 귀중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다.

1957년 10월호 《사상계》 284쪽에 이런 글이 씌어 있다.

"바로 그 이튿날, 그러니까 작년 7월 27일, 나는 이번 구라파 여행의 주요 목적의 하나라고 할 하이덱가아 교수 방문을 하기 위하여 하이델베르크에서 기차를 타고 후라이부르크로 향하였다. 마침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을 연구중인 서동익(徐同益)군이 동행하게 되어 나로서는 다시없이 유쾌하였고 마음 든든하였다."

이 글은 고(故)박종홍(朴鍾鴻) 교수의 여행기인 〈하이덱가아 교수를 찾아서〉의 일부인데, 이 글 속에 등장하는 하이데거 교수, 서동익 선생님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라는 말들이 그리움을 자아내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후세인들에게 '학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남겨준 하이데거 (1889~1976).

흑심을 발동시킨 하이데거 친필 서명 책

서동익 선생님은 광주 태생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가다머 교수 밑에서 철학 공부를 하고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셨다. 필자는 학부시절 서교수님에게서 독일관념론 수업을 받은 일이 있는데, 지금도 그 노트를 간직하고 있다.

서교수님께서는 강의하실 때 분필가루가 온 몸에 묻어나도록 열강하는 버릇을 가지고 계셨다. 60년도 초 서교수님께서 중앙대학으로 옮겨가실 무렵 학생들간에도 그 소문이 돌았고, 나는 가시지 말라는 내용의 쪽지를 연구실 문 밑으로 밀어 넣어 둔 기억이 있다. 어떻든 서교수님은 서울행을 택했고, 서울 삶에 시달리셨던지 일찍 세상을 뜨셨다.

세월이 흘러 철학과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서교수님의 장서 3천여 권이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되었다. 주로 양서인 이 도서들은 서양철학 전공자들에겐 한없이 좋은 보고(寶庫)였다. 당시만 해도 원서에 굶주린 지방 학자들, 특히 해외 연구경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랬다.

필자는 오래 전에 앞에 소개한 박종홍 교수의 글을 읽은 터라, 하이데거 교수를 방문했을 때 동행한 서교수님에게 하이데거 교수가 저서 한 권쯤 선물했을 법하다는 짐작으로 서교수님의 장서 가운데 하이데거의 책을 찾아보았다.

아니나다를까 하이데거의 《*Sein und Zeit*》가 있었고 예상대로 하이데거의 친필 사인이 있었다. "Für Herrn Suh"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홍분한 나머지 책을 바꿔치기할까 하는 흑심이 발동하기도 했다. 하이데거의 육필 한 점이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인가고 자문하면서도 그 책이 귀중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다.

필자는 그 후로 종종 이 책을 챙긴다. 서교수님의 장서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이 책들은 함부로 대출해주지도 않는데, 한번은 책이 없어져 도서관장을 만나 소재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책이 일반 서가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서교수님 장서 서가에 옮겨둔 일이 있다.

1982년 옛 스승에 대한 추억도 살리고 좋은 책을 쾌척한 것에 대한 보답도 할 겸 서교수님께서 1961년에 집필한 《교양으로서의 철학》이란 철학입문서를 재판하기로 하고, 서교수님 미망인의 허락도 받고 필요없는 한자를 한글로 고치는 등 손을 보아 수정증보판을 냈다.

필자는 이 수정판 몇 권을 싸들고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을 동행하여 서교수님 자택을 방문했다. 서교수님 댁에서는 작은 잔치상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출가한 딸 내외까지 불러오고 의과대학에 다닌다는 아들도 함께하고 있었다. 새로 찍은 《교양으로서의 철학》을 증정했다. 옛날 것보다 종이나 인쇄형편이 훨씬 나은 것인지라 보기에도 좋았다. 새 책을 받아들고 사모님께서 감격스런 말씀을 하셨다. "마치 선생님께서 집에 돌아오신 느낌이 듭니다"고.

옆에서 시종일관 상기된 표정으로 거들고 있던 큰딸이 특히 우리를 반기는 기색이었다. 알고 보니 큰딸이 여고생일 때 서교수님의 책을 전남대학에 기증하는 일이 진행되었는데, 그 때 아버지의 책을 남들이 가져가는 것을 울며 반대해 딸을 밖에 내보내놓고 책을 옮겼다고 한다.

그런 일로 인해 딸의 마음은 내내 아픔을 간직해 왔는데, 이제 가정주부가 될 만큼 나이도 들었지만 오늘 아버지의 낡은 책이 후학들에 의해 빛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니 기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책이 많은 사람의 학문 연구에 도움을 주고 또 재판까지 펴내주는 인정에 고마워한 것이다.

스승의 책을 수탈한 듯한 느낌

우리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작은

감사패를 드리고 자리를 뜰 무렵 가족끼리 눈을 맞추더니 필자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사연인즉 서교수님의 막내아들이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전공인 철학에 미련이 있어 혹시나 하고 남겨 두었던 책마저 모두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각설하고 다음날 오전 내내 서울 시내 모 서점 직원과 함께 다락방 책 무더기를 뒤져 쓸 만한 책 3백여권을 골랐다. 이 중에는 아카데미판 칸트전집이 들어 있다. 두 차례에 걸쳐 귀중한 책을 얻으니 기쁘기야 하지만 한편 무자비한 수탈을 자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보통 책 한 권을 사는 경우 얼마나 고르고 망설이는가를 생각하면 서교수님의 평생 장서를 손쉽게 집어내오는 일이 못할 짓만 같았다.

이야기는 다시 10년 전 1987년. 필자가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1년간 머물게 되었을 때, 20년 전 서교수님 일행이 찾았던 하이데거의 오두막을 방문하였다. 슈바르츠발트의 깊숙한 산골 토트나우베르크(Todnauberg)의 구석진 언덕배기에 덩그러니 서 있는 판자집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집필했던 현장이다.

언덕으로 올라오는 골목에 '하이데거 가(街)' 라는 팻말이 없다면 신통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옹색한 시골이다. 그리고 필자가 방문할 때는 커다란 소 두 마리가 낯선 방문객을 향해 눈을 두리번거리며 마른 풀을 뜯고 있었다.

박종홍 교수 일행은 하이데거가 머물고 있는 토트나우베르크를 곧장 찾아갔기 때문에 평소 하이데거가 살던 시내의 자택을 방문하지 못한 것 같다. 하이데거의 자택은 프라이부르크시 뢰테북(Rötebuch) 47번지에 있다. 필자가 1987년 11월 말 저녁나절 그 곳을 찾았을 때 마침 하이데거의 장남이 사립문을 손질하고 있었다. 장남은 덩치가 크고 훤한 얼굴이었는데 사진에서 본 하이데거와 아주 닮았다. 그는 마음씨 좋은 시골 아저씨처럼 편안하게 방문객을 맞아주며 여기저기 집 구조도 설명해주었다.

2층 오른 쪽 방을 가리키고 하이데거가 쓰던 방이라고 일러주며 그 쪽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라고 했다. 이 집은 하이데거가 죽은 뒤 지금은 자기의 딸,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손녀가 살고 있으며 사위도 아예 성을 하이데거로 바꾸었다고 한다. 필자가 한국에서 온 철학 교수이며 하이데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니까 자기는 철학에 관계하지 않으니 할 말이 없고 동생이 헤르만교수(F. Hermann)와 함께 유고 정리 작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남인가 북인가를 물었다.

학자의 삶에 논의 던진 책

당시 하이데거에게 돌을 던지는 책이 한 권 출판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저자는 하이데거의 학생이었던 파리아스(V. Farias)라고 하는 칠레인인데 그가 쓴 책이 《하이데거와 나치즘》이었다. 프랑스에서 출간된 이 책 속에서, 하이데거가 1933년 3월부터 1945년까지 당원 번호 312589이었던 나치당원이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또 하이데거가 당비를 납부하고 교수를 밀고한 사실까지 있다고 밝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베를린 문서보관소에서 얻어낸 것이라고 한다. 사실이야 어떻든 하이데거를 아끼고 그의 사상을 연구하는 하이데거의 학도들에게는 이만저만한 아픔이 아니었다.

1987년 11월 중순 프라이부르크의 한 신문에 독자들의 투고가 있었는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 학생은, "하이데거의 사유는 모든 것을 긍정했다. 악조차도" 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독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이데거를 사랑했었다"고.

주석을 붙이면 그렇게 우리들(인간들)이 사랑했던 하이데거에게 지금에 와서 돌을 던져 어쩌자는 것이냐는 식이다. 학문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례가 됨직하며, 이 또한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논의를 남겨주고 세상을 떠난 듯했다. ❖

출판물 유통 40년, 창립정신을 이어갑니다

일원화공급 도서목록 1996

저희
출판사들은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통하여
一元化供給하고
있습니다.

일원화공급 회원사 도서목록 1995

출판물의 판매, 배송, 수금, 재고 및 서점의 일괄관리

일원화공급 회원사

계명문화사
과학과예술
광문각
교육산업
국학자료원 (새미)
기술
도서출판 나라 (대웅출판사) (창작수필사)
높은 오름
대광문화사 (한국시사)
대동문화사
대륙연구소
대윤
大典書籍 (증권서적)
대정진
대훈사
동인
문화과학사
민족문화
바로교육
박이정 (서광학술자료사)
배명사
보고사
보문당
복두출판사
사상사 (하나미디어, 백두)
사회문화연구소
사회평론
서울경영컨설팅
서울프레스
성균관출판부
세종출판사
신서원
신지서원
신한종합연구소
아침
아카데미아
양문각
어문학사
엘맨 (크리스찬하우스)
오늘의문학사
오롬시스템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외)
우등불
유림문화사
음악예술사
이회문화사
일월서각
전통문화연구회
전파과학사
정문출판사
정훈출판사
좋은인연
참말
창조사
청목출판사
청암미디어 (양영각)
태성출판사
태학사
학연문화사 (춘추각)
한국대학신문사 (엘리트 뱅크)
한국문화사
한국산업경영연구소
한국적산연구소
한나래
한송
향학사
현대미학사
현대실학사
현대침구원
현상과인식
홍문관
화산문화
경남대출판부
경성대출판부
부산대출판부
부산외대출판부
울산대출판부
전주대출판부
한국외대출판부

우리 조합의 상세한 신간도서 자료는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고 있으며,
또한 신간도서 자료가 필요한 분을 위하여 주2회 PC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한국출판협동조합

일원화공급 거래문의(출판사 · 서점) TEL. 716-5616~9(106, 119)
도서주문 전용 FAX. 716-3819, 3820, 2995